

녹풍은 물결

통권 276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9 2022



석탄대신 바람과 햇빛으로~

8월 22일 에너지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석탄대신 바람과 햇빛으로"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개최

일시: 2022년 9월 26일 오후 6시 30분

장소: 메가페밀리 뷔페



“슬래그 야적장 강알칼리성 침출수 유출”



철탑 공사에 허리 파헤쳐지는 소들섬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현장 보러 왔어요”

- ▶ 발행일 2022. 9.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명절 인사

4 지역환경초점1

| “슬래그 야적장 강알칼리성 침출수 유출”

6 지역환경초점2

| 철탑 공사에 허리 파헤쳐지는 소들섬

8 지역환경초점3

| ‘그린’은 없고 ‘경제’만 있다?

10 지역환경단신1

| 충남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토론

11 지역환경단신2

|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현장 보러 왔어요”

12 전국환경초점1

|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시작

13 전국환경초점2

| 원전 위험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4 전국환경초점3

| “기후정의 실현 위해 최대 5만명 시민 행동 나설 것”

15 8월 살림살이

16 생활 속 환경! 머리 속 실천!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참여

18 석탄씨를 구해줘

| 25화어떤 의미

20 8월 활동소식

22 9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항상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님,
이제 선선하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즐거운 추석,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행복이 가득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고향 길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사무국 일동



“슬래그 야적장 강알칼리성 침출수 유출”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슬래그 야적장

현대제철이 송산2일반산단 내 슬라브 보관을 위해 슬래그 골재를 복토한 가운데, 이로 인한 강알칼리성의 침출수가 주변 농경지와 석문면 내수면에 흘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슬래그 골재 복토 기간은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복토량은 약 30만㎡, 면적은 약 12만8700㎡에 이른다. 최근 잦은 비가 이어지며 슬래그 골재를 복토한 곳에서 강알칼리성의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 이에 당진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한 결과 고농도 알칼리인 pH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pH12는 시멘트나 합성세제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농도의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현재는 현대제철 측에서 침출수가 고이는 침사지 확장 공사와 함께 중화약품을 투입해 산성도를 조절한 상태다. 한편 당진시의회 현장 방문 자리에서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pH6.5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 수돗물이 pH5.8~8.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산성도가 정상 수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시의원들은 산성도를 낮추는 방안 등 향후 현대제철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영훈 의원이 강알칼리성을 중성으로 낮추는 계획에 대해 물었으며, 당진시에서도 결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제철에서는 현재 황산반토를 중화제를 이용해서 침사지 내 침

당진시의회 시의원들이 8월 22일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슬래그 성토장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현대제철 슬래그 성토장에 설치된 침사지 모습.

출수를 모아 산성도를 낮추고 있다. 중화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황산반토의 경우 정수 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추가로 배수로를 보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복토해 산성도 높은 침출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던 가운데 이번에

복토한 슬래그의 경우 1년 이상 숙성한 후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재활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현대제철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슬래그 침출수에 악취 가득 축분까지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가 환경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22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충남도 인·허가 절차 과정에 있는 면천면 문봉리 토양정화업 공장을 시작으로,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야적장과, 석문산단에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처리장, 그리고 고대면 옥현리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 축분 비료공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상연·서영훈·김명진·윤명수·전영욱·김선호 의원이 참여했으며, 총무위원회 소속 한상화·김명희·심의수·전선아 의원이 동행했다. [출처: 당진시대]

철탑 공사에 허리 파헤쳐지는 소들섬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슬래그 야적장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대책위 주민들이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전이 소들섬 철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소사모)에 따르면 소들섬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10월까지 소들섬에 철탑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7월 굴삭기 등 중장비를 바지선으로 투입해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원에 진행되는 철탑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전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월 2심에서 법원은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심리 불속행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8월 25일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사중지

명령에도 여전히 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당진시민사회단체는 △한전은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 즉각 고발하고, 공사중단 위한 공권력 투입 요청하라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중략)

기자회견을 마친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 일동은 소들섬 공사에 대해 행위 제한 명령을 즉시 내려줄 것을 오성환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당진시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당시 오성환 시장은 송산2외투단지에서 다이킨코리아(주) 당진공장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집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이에 김지환 비서실장은 주민들에게 회의실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하면서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들이 기자회견 후 당진시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이후 김영명 부시장이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오후 일정으로 잡겠다고 약속하며,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시장실 농성은 11시 45분경 마무리됐다. (중략)

소사모와 우강면 주민들은 11월 1일부터는 철새 도래 기간으로 한전에서 소들섬에 철담 공사를 할 수 없고, 11월 23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진시가 빠른 시일 내에 행위 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성환 당진시장과의 긴급 면담을 가진 당진시민사회단체와 우강면 주민들은 시장 고유 권한으로 행위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영란 상임대표는 “소들섬 공사를 계속 하는 이유는 벌금만 받을 뿐이고, 징역형이 아니기 때

문에 불법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시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 고유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행위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송전 선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법적 자문을 받은 것”이라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공무원인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시민들을 지킬 것이며, 위법이 있으면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소사모 자문변호사는 행위제한을 시장 고유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한 만큼 담당 실과에서는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알려 달라”고 실과에 주문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그린'은 없고 '경제'만 있다?

당진시 도시브랜드 '그린 경제도시' 선정



오성환 당진시장

**수소산업·탄소밸리·호수공원·자사고 등 추진
“이름만 ‘그린(Green)’인 토건사업”비판도**

당진시가 민선8기 당진시 도시브랜드를 ‘그린 경제도시’로 정하고 10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당진시청 공직자들 대상으로 진행된 현안 토론회에서 민선8기 도시 브랜드와 10대 브랜드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당진시가 선정한 도시 브랜드 ‘그린 경제도시’는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 자원의 총량을 키워 그 결과가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향상으로 선순환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그린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성장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10대 브랜드 사업을 선정했다.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석문국가산업단지 탄소밸리 조성 △당진합덕역 세권 개발 △농업 신품종·신품목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심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 개 창출 △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신설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의료인프라 확충 및 주야간 소아 진료체계 구축)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점검을 위해 당진시는 10대 브랜드 사업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부시장이 총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도시과 △교통과 △농식품유통과 △미래농업과 △평생학습과 △산림녹지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가 참여한다. TF팀에서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와 충남도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민선8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대 추진과제가 경제성장에 집중돼 있을 뿐, 도시브랜드에 포함된 ‘그린’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

■민선8기 당진시 도시브랜드 : 그린 경제도시

■10대 브랜드 사업

구분	추진사업	주관부서
신성장 기반 마련	1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투자유치과
	2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3 석문국가산업단지 탄소밸리 조성	
	4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과
	5 당진합덕역세권 개발	도시과 교통과
	6 농업 신품목 신품종 육성	농식품유통과 / 미래농업과
정주여건 조성	7 도심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	산림녹지과
	8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	투자유치과
	9 고등학교 신설(자율형 사립고 신설)	평생학습과
	10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의료인프라 확충, 주야간 소아 진료체계 구축 등)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소산업·탄소밸리·해양관광·호수공원 등은 겉보기에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LNG기지와 현대제철을 활용한 수소산업 클러스터와 탄소밸리 조성, 갯벌을 매립하는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인위적으로 준설을 통해 조성하는 호수공원 등은 ‘그린’이 아닌 토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자리 1만개 창출 또한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진시가 10대 브랜드 사업을 민선8기 주요사업으로 발표했지만 이미 언급돼 왔던 딱히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탄소밸리, 역세권 개발은 민선6·7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

돼왔고, 자율형 사립고는 과거에 추진되다 무산된 적 있는 사업”이라며 “호수공원 등 오성환 시장이 일부 새로운 사업을 제시했지만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8기에서 시민들에게 제시한 주요사업이 전체적으로 특별하거나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출처 : 당진시대]

충남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토론

지속가능발전대회 이해관계자 컨퍼런스 개최



지난 8월 12일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8월 1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가 각각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후 패널 토론에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보령행동 이선숙 대표, 당진시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조순형 위원장,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 특구 지정 방안 등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

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황성렬 공동대표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충남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토론회는 8월 11일부터 3일간 보령에서 진행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이해관계자 컨퍼런스 일환으로 개최됐다.

[글: 사무국]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현장 보러 왔어요”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현장 연수



지난 8월 12일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25명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새만금, 내성천, 영주댐, 월성원전 등 전국의 주요 환경현안 지역을 돌아보는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현장 연수 첫날인 24일 당진을 찾은 활동가들은 당진에코파워,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석문각, 당진화력 회처리장 등을 둘러 봤다.

먼저 당진에코파워를 방문해 8년 간의 당진에코파워 저지 투쟁 끝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막아낸 경과와 이후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이후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로 이동해 전

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당진화력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센터의 역할, 당진화력발전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옆 석문각에 올라 당진화력발전소와 주변 상황을 둘러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탄소중립에서 탈석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후 당진화력 회처리장을 방문해 석탄재 매립 현황과 회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을 둘러본 후 당진지역 현장 연수를 마쳤다. 이날 신입활동가 당진 현장 연수에는 황성렬 공동의장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해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들을 맞이했다.

[글: 사무국]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시작

시민사회연대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 취소해야”



탈석탄법 제정 국회청원을 추진 중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회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탈석탄법 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할 국가의 정치적 의지는 부족할 뿐”이라며 “국제사회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석탄발전 건설 사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서 오는 204년 준공을 목표로 21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를 건설 중이다. 이들은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이다.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이 가동되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 물론,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가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9월 한 달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크레임]

[논평]

원전 위험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원전 확대 정책은 기후위기 해법될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했다. 한마디로 원전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 NDC 달성을 위해 세운 30%에서 20%로 줄이는 계획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상향하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REPowerEU)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전의 경우 2036년까지 12기를 수명연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안전성은 물론 대책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지금 고리2호기처럼 제대로 된 안전성평거나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격납건물 공극 사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삼중수소 누설 사건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현실에 노후원전은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작 줄여야 할 석탄감축 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다.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반영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신규 석탄발전소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중단시키고 전환할 정부 계획과 범제화가 시급하다.

한 치 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 위험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원전 밀집도 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원전확대는 결국 전국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너무나 답답하다. 위험은 무시하고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제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이라도 제대로 따라가길 바란다.

2022. 8. 30

환경운동연합

"기후정의 실현 위해 최대 5만명 시민 행동 나설 것"

기후정의행동 조직위, "정부, 탄소배출 기업에 책임 부과" 등 요구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가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후정의 실현에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 재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는 9월24일 기후정의를 기치로 최대 5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선포했다.

조직위는 "기후 재난은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말잔치에도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탓"이라며 "현재의 화석연료와 생명과 과 체제를 종식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성장중심의 발전을 끝내지 않는다면, 국가 내 불평등을 넘어 전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는 온

전히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공공적,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피해가 집중된다"며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고 지구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자본 권력에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종식하도록 하는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8월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3,812,327	인건비	급여	4,540,000
회 비	개인회비	5,770,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20,000		사회보험료	466,310
	계	5,790,000		계	5,372,1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197,440	경상비	복리후생비	
	법인후원	300,000		세금과공과금	134,770
	계	497,440		소모품비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0		지급수수료	483,830
	계	0		기타운영비	222,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0	계	841,500	
	계	0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52,600
보조금	기타사업	0		생태보전사업	
	계	0		생화환경사업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0		조직 회원사업	1,144,600
	계	0		모금사업	319,94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연대사업	411,600
	계	0		기타사업	25,000
전입금	전입금	0		계	2,053,740
	계	0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0
차입금	차입금	0		계	0
	계	0	이월액	이월액	11,832,397
				계	11,832,397
월수입 총계		6,287,440	월지출 총계		8,267,370
수입 합계		20,099,767	지출 합계		20,099,767

잘가라 마지막 석탄발전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지를 위해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꼭 참여해주시시오.

탈석탄법 제정

집중호우, 폭염, 가뭄, 잦은 태풍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기후위기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잃게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폐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하지만, 2030년까지 8년 정도 남은 지금,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포스코가 건설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도록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탈석탄법 제정

01.

“국민동의청원” 검색

또는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로 바로 접속

1 <https://petitions.assembly.go.kr/>

2 QR코드



탈석탄법 제정

02.

탈석탄법 검색

검색창에 탈석탄법 검색하기



탈식탄법 제정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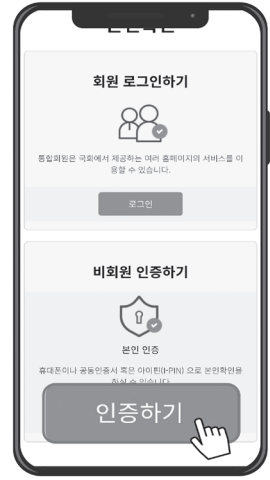
동의하기 클릭



탈식탄법 제정

04.

회원이면 로그인
비회원이면
인증하기 클릭



탈식탄법 제정

05.

비회원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
인증 방법 세가지 중
휴대폰 본인인증 선택



탈식탄법 제정

06.

본인인증 후
동의하기 누르기



탈식탄법 제정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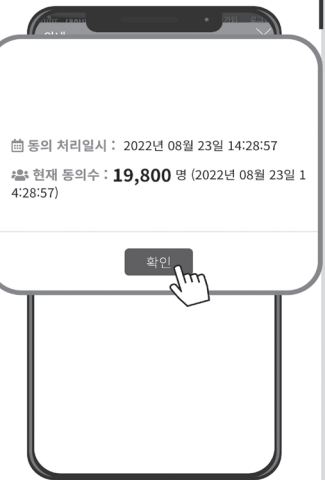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선택 후 청원동의의 버튼
누르면 청원완료!



탈식탄법 제정

08.

청원완료!



☞ 동의 처리일시 : 2022년 08월 23일 14:28:57
☞ 현재 동의수 : 19,800 명 (2022년 08월 23일 14:28:57)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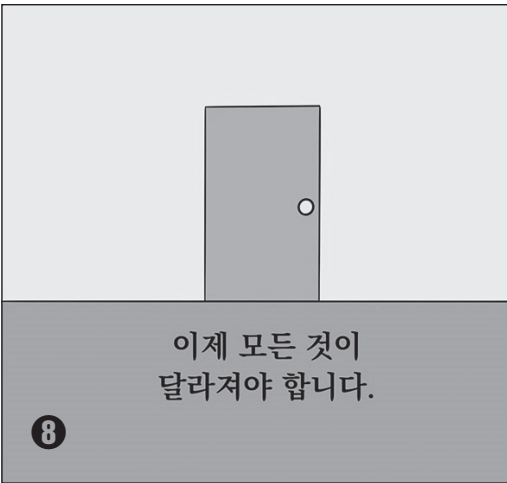
제 25화 어떤 의미



<석탄씨를 구해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에너지 인식 대전환을 위해 제작된 환경운동연합 브랜드 웹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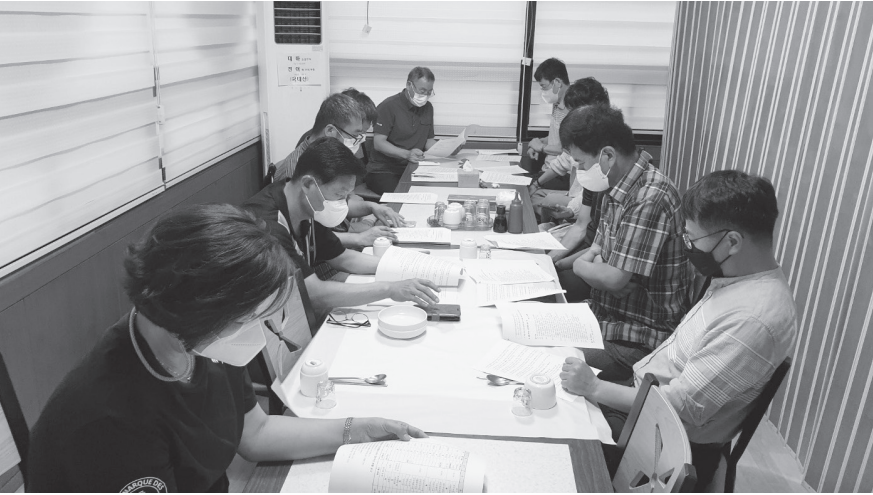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

제 25화 어떤 의미



지금까지 '석탄씨를 구해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운영위원회 회의 및 자문단, 고문단 간담회

지난 8월 9일 해송식당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와 함께 오랜만에 자문단, 고문단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론장

지난 8월 10일 당진시청에서 204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당진-MGoS' 시민속의 공론장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SPC삼립그룹 규탄 1인 시위

지난 8월 16일 파리바게트 당진문예의 전당점 앞에서 SPC삼립그룹 규탄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8월 22일 에너지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구터미널 앞에서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전국대표자 회의

8월 27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에 손창원 상임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CPTPP가입저지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8월 30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CPTPP 가입저지를 위한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01 일반사업

- ❖ 9/01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 ❖ 9/05 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환경연합 '탄소중립 지방정부 현안과 과제' 세미나 - 온라인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 ❖ 9/06 2022 충남탈석탄 컨퍼런스 세션2, 세션4 토론회 - 온라인
9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9/07 환경연합 기후정의 행동의 날 - 문예의전당 사거리
- ❖ 9/08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온라인
- ❖ 9/13 충남에너지전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내포혁신플랫폼
- ❖ 9/15 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 소들습터
- ❖ 9/16 충남 기후정의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충남도청
충남 정의로운전환 포럼 - 내포혁신플랫폼
- ❖ 9/17 제3차 해변환경정화활동 - 대호방조제
- ❖ 9/19 충남에너지전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내포혁신플랫폼
- ❖ 9/20 충남에너지전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내포혁신플랫폼
- ❖ 9/21 기후정의행동 주간 당진기후행동 - 구터미널 로터리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미정
- ❖ 9/23 탈석탄지역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세미나 - 온라인
- ❖ 9/24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행진 - 서울
- ❖ 9/26 2022년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 메가패밀리뷔페
- ❖ 9/27 충남에너지전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내포혁신플랫폼
- ❖ 9/29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9/28(수)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순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환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자
 김윤태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중균 김중래
 김중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멩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태식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중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훈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완순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라 유경자 유 성 유영석 유준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세범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한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준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원 최재혁 최중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정수 함효진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전략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22년 9월 17일(토) 오전 9시

장소: 도비도 해안가

내 용

-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기후정의는 장항선을 타고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바랍니다.

일 시 9월 24일 (토) 오전 10시 30분 당진 출발

기후정의 행진 오후3시 서울광화문 일대

참가문의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